

韓醫學文獻을 통한 醫學倫理에 관한 考察

金容辰 · 尹暢烈*

I. 緒 論

人間을 흔히 社會的動物, 倫理的動物이라고 特徵지어 부르는데 이것은 人間의 生活樣式과 品位 및 特性을 指摘하는 말이다. 人間은 本能에 의해서 살아가고 活動하는 存在가 아니고 構想하고 形成하며 判斷하고 評價하며 살아간다. 이와 같은 現象들은 個人의 能力과 品位가 獨立의이면서도 相互 關聯性 안에서 展開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人間으로 태어났으면 人間으로서 成長하고 成熟되어야 한다는 課題를 안고 있으며 그 周邊 사람들도 그가 人間으로 成長하는데 同參者요, 協力者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倫理는 人間과 그 人間을 規定하거나 束縛하는 規範과의 關係가 아니고 人間과 人間, 또 人間과 自然環境等과의 關係에서 考察되어야 하는 것이다.

倫理에는 基本的으로 두가지 範疇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보다 根源的이고 本質的인 規範을 다루는 一般倫理이고, 다른 하나는 特定分野에서 使用되는 特殊倫理이다. 倫理의 根據는 通念的으로 一般倫理와 特殊倫理를 分離하여 생각하는 것이 便利하다. 本質的으로 人間行爲 全般에 대한 基本的이고 普遍的인 規範과 關聯되어있는 一般倫理의 根據는 共同體社會를 效果的으로 이끌어가고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큰 幸福을 안겨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醫學이나 經濟學이나 法學과 같은 特定分野의 健全한 發展과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듬어지는 規範과 關聯되어 있는 소위 特殊倫理의 根據는 各其 分野의 特殊性에 따라서 그 分野自體內에서 要請되는 規範과 그 分野가 存在하고 있는 周邊社會가 要求하는 外的인 道德律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醫學倫理는 醫療行爲를 하는데 있어서 要求되는 道德的 規範과 諸般義務事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道德的 義務는 診療에 臨하고 있는 모든 醫師와 關聯職業人들에게 共通的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同僚醫師나 一般社會가 한결같이 그 義務가 제대로 지켜지기를 企待하고 있다.

醫學倫理의 根據는 보는 사람의 立場에 따라 見解의 差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倫理는 우리 人類가 太古에 集團社會를 形成하면서부터 集團社會의 共同利益과 共同善과 附屬되는 方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醫學倫理의 根據또한 健康과 生命의 維持를 人間本能에서의 渴求를 最大多數를 對象으로 풀어주는 最善의 努力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人間本能에서의 要求에 의하여 싹트기 시작한 醫學倫理는 긴 세월을 흐르는 동안 많은 變遷을 하여 한 社會가 要求하는데로 다져진,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變遷해 나갈 處地에 있는 醫學倫理로 發展하였다.

實踐的인 面에서 醫學倫理를 생각해 보면 醫學倫理는 醫師와 그 周邊사람들 그리고 患者와 그 周邊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人間的關係를 成立시키고 持續시켜주는 社會的 制度, 또는 文化的 環境을 가장 理想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道德的 規範을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다지고 完成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멀톤(Merton)은 體系的이고 精密한 知識, 知識을 活用하는 熟練된 技術에 의해서 具體化되는 能力, 能力을 實踐에 옮김으로써 行動化하게 되는 施術의 세가지를 醫學과 같은 專門職業에서 社會的 價値를 認定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²⁾ 위와 같은 醫學倫理의 內容을 韓醫學 文獻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기에 筆者는 韓醫學 文獻을 통해서 나타난 醫學倫理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여기에서는 韓醫學 文獻에 나타난 醫學倫理에 관한 內容을 主題가 類似한 內容끼리 묶어서 考察하고자 한다.

(1). 일을 사랑하고 배우기를 열심히 한다.

〈論語〉'雍也'에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⁵⁾ 라고 하였는데 이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만큼은 못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움에 興味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은 못하다는 것으로, 醫師들은 더욱더 이려야 하는데 다만 自身の 專門分野만을 좋아하지 않고 모든分野에 두루 涉獵하여야 한다. 古代 醫家は 醫學은 반드시 博學多識 하여야 하며 謹嚴하게 배워야 한다고 認識하고 있다. 醫學은 至極히 精微한 것으로 生命과 關係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學者는 반드시 天文·地理·人事를 알아야만 한다고 하였으니 〈內經〉中에도 天文·易法·地理等の 知識이 豊富하게 收錄되어 있다. 晉代 楊泉(梁代 陽泉)은 〈物理論〉中에서 "夫醫者 非仁愛之士 不可托也 非聰明理達 不可任也 非廉潔淳良 不可信也 是以古之用醫 必選名姓之後 其德能仁者博愛 其智能宣暢曲解……貫幽達微 不失細小 如此乃謂良醫"¹¹⁾ 21) 라고 하여 醫學은 쉽게 배울 수 있는것이 아니며 또야무나 醫師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東漢의 張仲景은 青年때에 張伯祖에게 醫學을 배웠으며 열심히 醫學을 工夫하여 후에는 張伯祖보다 醫學에 더 精通하게 되었다. 그는 當時의 士大夫들이 醫藥에는 沒頭하지 않고 方術에만 置重하고 權勢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여 오직 名利만을 追求하는 것을 批判하여 '游魂'이라고 하였다. 그가 살았던 時期는 戰爭과 疫病이 頻發하던 時期로 그의 種族은 原來 長沙의 太守로 二百餘家口가 살았으나 建安元年(196년) 이래로 十年이 안되어 거의 1/3의 人口가 疫病에 이환되어 죽었는데 그중 70%가 傷寒病症 이었다. 이러한 現實이 그로 하여금 醫學을 工夫하게 하여 〈素問〉, 〈九卷〉, 〈八十一難〉 등 古典醫書를 열심히 探讀하고 自身の 豊富한 臨床經驗을 結合하여 마침내 〈傷寒雜病論〉이라는 醫書를 著述하였다. 現存하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두 가지는 〈傷寒雜病論〉에서 나누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長沙懸志〉에는 "建在湘城中賢良祠之西 古한 太守張機 字仲景 漢時長沙大疫流行 治法雜出 公爲作〈傷寒論〉, 〈金匱方〉行世 全活無數 祭法曰 有功德于民者則기지 此之謂也"라는 張仲景을 기리는 祠堂이 있다고 한다.¹¹⁾

唐代 孫思邈은 어려서 疾病으로 인하여 家産을 蕩盡하여 醫學의 重要性을 깨달아서 一生동안 醫學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이를 더욱 具體化하여 提示하여 醫師는 반드시 〈素問〉, 〈甲乙〉, 〈黃帝針經〉, 〈明堂疎注〉, 12經脈, 三部九候, 五臟六腑, 表裏空穴, 〈本草〉, 〈藥對〉, 張仲景, 王叔和, 阮河南, 范東陽, 張備, 靳邵 등 모든 經方을 暗誦하

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 陰陽祿命, 周易六任, 五經三史, 莊老諸子, 七耀天文등을 모두 涉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醫學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要求하는 것은 매우 嚴格하였고 學習範圍를 廣範圍하게 指定한 것 등은 그가 매우 誠實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는 醫學의 基礎理論뿐만 아니라 諸家의 經驗方과 文史·哲學·天文·地理등도 包含되었으니 結局 사람들에게 '精勤不倦 博極醫源'을 가르쳤고 孫思邈 自身이 이의 模範이 되었다. 孫思邈은 어려서부터 工夫하기를 좋아하여 7歲때에는 매일 一千字를 暗誦하였고, 12歲때에 이미 諸子百家醫學設에 正統하였다. 그가 18歲되던 해에는 醫學에 뜻을두고 刻苦의 努力으로 工夫를 '百首之年 未嘗釋券'하였을 뿐 만아니라 '留心作意 殷勤學之'라고 하여 古代醫家의 經驗을 學習하는 것을 重要示 여겼고, 또 當時의 經驗있는 醫師나 民間醫師들에게도 學習을 하였으니 이는 '一事長于己者 不遠千里 伏應取決'^{7), 21)} 한 것이다.

明代 李時珍은 집안 대대로 醫學을 하여서 醫藥學의 研究에 關心이 깊어 歷代의 本草에 錯誤가 많은 것을 알고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여 여러 곳을 訪門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約三十年동안 醫書외에도 文學·史學·言語學·音韻學·農學·天文·曆法등과 詩歌·小說等 八百餘卷의 冊을 涉獵하여 <本草綱目>이라는 書籍을 著述하였다. 이와 같이 卓越한 才能을 가지고있는 醫學者들은 自身의 일에 獻身의이었고 確固한 信念이 있었다.¹²⁾

<傷寒論> '自序' 에 "自非才高識妙 豈能探其理致哉"¹⁴⁾ 라고 하여 醫學의 理致는 매우 깊고 어려우며 疾病의 發展은 多樣하여 만약 博學多識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을 把握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는 歷代醫家들의 論述이 많이 있다. <素問> '著至教論' 에 "必修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¹⁰⁾ 라고 하였고, '陰陽應象大論' 에 "治不法天之氣 不用地之理 則災害至矣"¹⁰⁾ 라고 하여 醫師는 萬物의 理致에 通達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張仲景은 "勤求古訓 博采衆方"¹⁴⁾ 이라고 하여 自身은 刻苦의 努力으로 學文과 方術을 익혔다고 하였다. 晉代 皇甫謐은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恒常 農事일을 하면서 工夫를 하여 文史·哲醫등의 書籍을 두루 讀破하였고 中年이 되어 風痺症에 걸려서도 讀書를 하여 "耽玩典籍 忘寢與食 時人謂之書淫"이라고 하였다. 晉代 葛洪도 집안이 가난하여 어렵게 讀書를 하여 "但貪廣覽 于衆書乃無不暗誦精持 曾所披涉 自正經諸史百家之言 下至短雜文章 近萬卷"하여 醫藥學과 學術에 모두 造詣가 깊었다.

醫師는 醫術이 精巧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患者를 危殆롭게 할 수가 있으므로 <難經> '十二難' 에 "陽絕補陰 陰絕補陽 是謂 實實虛虛 損不足 益有餘 如此死者 醫殺之耳"²⁰⁾ 라고 하였고, 明代 徐春甫는 "醫學貫精 不精則害人匪世"라고 하였고, 南齊 褚澄은 "病有微而殺人 勢有重而易治 精微區別 天下之良工哉"라고 하였다.

(2). 親疏貴賤을 가리지 않고 專心專力으로 治療하여야 한다.

歷代의 醫家들은 醫術은 仁術이라고 認識하여 모든 患者를 誠心誠意껏 自身의 實力을 다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唐代 孫思邈은 "凡大醫治病 必當安神定志 無欲無求 先發大慈惻隱之心 誓願普救含靈之苦 若有疾厄來求救者 不必問其貴賤貧富 長幼妍媸 怨親善友 華夷愚智 普同一等 皆如至親之想"⁷⁾ 이라고 하여 모든 患者를 自身의 父母와 같이 생각하여 精誠껏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元代 朱震亨은 富貴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疾病을 治療하여주었는데 한번은 "權貴人以微疾來召 危坐中庭 列三品儀衛于左右 先生脈已 不言而出 或追問之 先生曰 三月後當爲鬼 猶有驕氣耶"⁸⁾ 하였는데 이는 富貴한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는 精神을 表現한 것이다. 明代 龔庭賢은 當

時의 富者를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風潮를 批判하여 <萬病回春> 中에서 “今世之醫……每于富者用心 貧者忽略 此固醫者之恒情 殆非仁術也 以余論之 醫乃生死所寄 責任匪輕 豈可因貧富而我爲厚薄哉!”⁹⁾ 라고 하였다. 明代 陳實功은 가난한 患者에 대하여 더욱 關心을 가지고 <外科正宗>에서 “凡病家大小貧富人等 請觀者便可往之 勿得遲延厭棄”, “貧富之家 及游食僧道衙門差役人等 凡來看病 不可要他藥錢 只當奉藥 再遇貧難者 當量力微贈 方爲仁術 不然有藥而無火食者 命亦難保也”¹⁹⁾ 라고 하였다. 陳實功은 四十餘年間 外科를 專攻하면서 수많은 患者를 治療하였는데 그 중의 상당수가 가난에 苦痛받는 사람들이었다. 生活이 극히 貧困한 患者들에게는 診療費를 받지 않고 오히려 生活費를 대주었으니 後世사람들이 이러한 博施濟衆의 精神을 稱頌하는 바이다.

治病은 迅速하게 하는 것이 重要한데, 唐代 孫思邈은 “勿避嶮巖 晝夜寒暑 饑渴疲勞 一心赴救”하였고 北宋의 唐愼微도 “寒暑雨雪不避”⁷⁾ 하고 診療를 하였다. 元代 朱震亨은 “四方以疾迎候者無虛日 先生無不即往 雖雨雪載途 亦不爲止 仆夫告痛 先生諭之曰 病者度刻如歲 而欲自逸耶? 寔人求藥無不與 不求其償 人困厄無告者 不待其招 注藥往起之 雖百里之遠不憚也”⁸⁾ 하였으니 이것들은 患者가 있으면 迅速하게 治療를 하기위하여 氣候나 거리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診察에 나선다는 것이다.

治病에 있어서 不分親疏라는 것은 모든 患者를 똑같이 治療하여 주라는 것이다. 明代 萬全의 <幼科發揮>中에는 아래와 같은 逸話가 있다. 萬全과 怨恨關係인 胡元溪의 집에 四歲된 아이가 咳嗽吐血이 있어 여러名醫를 불러 治療하였으나 治療가 되지 않자 萬全에게 부탁하자 萬全은 “以活人爲心 不記宿怨”이라하여 아이를 診察하고 胡元溪에게 “可治 吾能愈之 假一月成功”이라고 하며 藥五貼을 服用시키니 아이의 病勢가 많이 好轉되었으나 胡元溪는 萬全을 계속 疑心하여 다른 醫師로 하여금 治療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이의 病勢가 더욱 惡化되자 萬全에게 다시 治療를 부탁하니 萬全은 “早聽吾語 不有此悔 要我調治 必去嫌疑之心 專付托之任 以一月爲期”라고 하며 아이를 完治시켜 주었다.²¹⁾ 이것은 병을 治療하는 데에는 私心을 버리고 眞心으로 병을 治療하는데 힘쓴 것으로 이와 같은 3品德이 醫師의 模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誠實하게 責任지며 조금의 疏忽함도 없어야 한다.

醫師는 患者의 安危와 關係가 깊어 臨證施治때에는 반드시 嚴肅하여 조금이라도 疏忽히 하여서는 안된다.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善診者 察色按脈 先別陰陽 審清濁而知部分 視喘息 聽音聲 而知所苦 觀權衡規矩 而知病所主 按尺寸 觀浮沈滑澀 而知病所生 以治無過 以診則不失矣”¹⁰⁾ 라고 하였고, <素問> ‘徵四失論’에서는 “精神不專 志意不理 外內相失 故時疑殆”, “診病不問其始 憂患飲食之失節 寄居之過度 或傷于毒 不先言此 卒持寸口 何病能中 妄言作名 爲粗所窮”¹⁰⁾이라고 하였고, 張仲景은 <傷寒論> ‘自序’에서 “省病問疾 務在口給 相對斯須 便處湯藥 按寸不及尺 握手不及足 人迎跌陽三部不參 動數發息 不滿五十 短期未知決診 九候曾無傍佛 明堂闕庭 盡不見察 所謂竅管而已 夫欲視死別生 實爲難矣”¹⁴⁾라고 하여 患者를 診察할 때에는 반드시 현재의 症狀뿐만 아니라 병이 오기전의 狀態(飲食, 寄居 등)를 把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古代醫家들은 모두 精心施治를 主張하여 臨證時에 여러 가지를 仔細히 살피기를 깊은 물속에 들어가거나 薄氷을 밟는것 같이하고 그 原因을 研究하지 않는 病이 없으며 그 理致를 다하지 않는 處方이 없으며 그 性質에 正統하지 않는 藥이 없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精密한 것을 더욱 精密하게 하려는 科學的인 精神과 一事不亂한 醫療態度를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韓醫學은 整體觀念과 辨證論治를 重要示 여긴다. 疾病을 治療하는 데에 있어서 自然環境 社會要素 人體의 條件등을 因時 因地 因人 등으로 分析하여 單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하였다. <素問> '移精變氣論'에 "治病不本四時 不知日月 不審逆從 病形已成 乃欲微針治其外 湯液治其內 粗工凶凶 以爲可攻 故病未已 新病復起"¹⁰⁾라고 하여 治病에 四時陰陽의 變化와 人體의 條件을 생각하지 않고 頭病에는 頭部를, 脚病에는 脚部를 治療하는 것과 같이 短篇的인 治療方法은 先病이 낫지 않았는데 新病이 생기는 不良한 結果과 招來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醫師는 外邪의 侵襲뿐만 아니라 內傷七情등 社會의 心理的 要因까지도 重要示 여겨야 하는 것이다. <素問> '疏五過論'에 "凡未診病者 必問嘗貴後賤 雖不中邪 病從內生 名曰脫營 嘗富後貧 名曰失精", "診有三常 必問貴賤 封君敗傷 及欲侯王 故貴脫勢 雖不中邪 精神內傷 身必敗亡"¹⁰⁾이라고 하여 診病에 있어 조그마한 精神要素에도 注意를 기울이지 않으면 治療의 過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患者의 心理的인 特徵과 情志病을 把握하기는 外感病을 把握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銳利하고 仔細하지 않으면 情志病을 把握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戴良의 <丹溪翁傳>에 "一女子病不食 面北臥者且半載 醫告術窮 翁診之 肝脈弦出寸口 曰 此思男子不得氣結于脾故耳! 叩之則許嫁丈夫入廣且五年 翁謂其夫曰 是病惟怒可解 蓋怒之氣擊而屬木 故能沖其土之結 今宜觸之使怒耳 父以爲不然 翁入而掌其面者三 責以不當有外思 女子號泣大怒 怒已進食 翁復潛謂其夫曰 思之氣雖解 然必得喜 則庶不再結 乃詐以其夫有書 且夕且歸 後三月果歸 而病不作"¹¹⁾이라는 文章이 있는데 이는 患者의 情況을 銳利하게 把握하여 治療한 것이다. 그러므로 醫師의 思想이나 態度는 恒常 患者를 仔細히 살피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小兒의 情志病을 疏忽히 하기 쉬운데 明代 萬全은 <幼科發揮>에서 "一兒半歲 忽日慘然不樂 昏睡不乳 予曰 形色無病 臟謂外感風寒 則無外感之證 將謂內傷乳食 則無內傷乳食之證 此兒莫非有所思 思則傷脾 乃昏睡不乳也 其父母悟云 有一小厮相伴者 吾使他往 今三日矣 乳母亦云 自小厮去後 便不欣喜 不吃乳 父急命呼之歸 兒見其童嘻笑 父曰 非翁之妙術 不能知也", "一兒一歲 啼哭不止 予審察之 非病也 其父母曰 無病何以啼哭異常 予問其乳母 此兒平日戲玩者何物 乳母曰 馬鞭子 即以取之 兒見大笑 擊人以哭止"¹¹⁾라고 하여 어린아이의 感情變化도 정교하게 把握하면 藥을 使用하지 않고도 治療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清代 陸以湑의 <冷廬醫話>에 다음과 같은 逸話가 있다.²¹⁾ 安徽 太平懸에 崔默庵이라는 名醫가 新婚 青年의 痘瘡이 全身에 번져 여러 醫師가 治療하지 못한病을 診察하였는데 脈은 모두 順調롭고 다만 조금 弱하였으니 그 原因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는 途中에 그는 患者가 食事を 잘하는 것을 알고 病因을 다른것에서 찾기로 하여 住居環境을 살피니 이 青年의 寢室에 새로운 漆器를 陳列하였는데 옷의 過敏反應으로 나타나는 漆瘡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治療시켜 주었다. 이는 疑心나고 어려운 患者를 대하게되면 病症을 仔細히 觀察하여 多方面으로 생각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4). 品行이 方正하고 報酬를 바라지 않는다.

宋代 無名氏의 <小兒衛生總微方論>에 "凡爲醫之道 必先正己 然後正物", "凡爲醫者 性存溫雅 志必謙慕 動須禮節 舉乃和柔 無自妄尊 不可矯飾"⁶⁾이라고 하였고, 明代 李中梓의 <醫宗必讀>에 "宅心醇謹 舉動安和 言無輕吐 目無亂視 忌心勿起 貪念罔生 毋忽貧賤 毋憚疲勞 檢醫典而精求 對疾苦而悲憫"¹³⁾이라고 하여 醫師는 品行이 方正하고 患者를 대할때에 誠實하며 禮意가 있어야 하므로 救死扶傷을 自身の 天職으로 삼아 醫術로서 自身을 貴하게 하거나 財物을 모으려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唐代의 孫思邈은

“醫人不得恃己所長 專心經略財物 但作救苦之心”이라고 하여 財物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李杲는 일찌기 ‘覓錢’ 대신 ‘傳道’ 로써 弟子를 選擇하는 基準으로 삼았으니 이는 古代 醫療道德教育의 典刑인 方法이다.⁷⁾ 李杲는 老年에 弟子를 選擇하여 授業하는데 羅天益이 行動과 品性이 敦朴하여 學文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羅天益에게 ‘너는 돈을 벌기 위해 醫師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世上에 醫術을 傳道하기 의해서 醫師가 되려고 하느냐’ 하고 質問하자 羅天益은 ‘醫術을 傳道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對答하자 그는 흔쾌히 弟子로 받아들였으니²⁾ 이는 財物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三國時期的 醫家인 董奉은 “日爲人治病 亦不取錢 病愈者 使栽杏一樹 重者五株 如此數年 計數十萬餘株 鬱然成一杏林” 하게 되었다. 後에 그는 收穫한 은행으로 糧食과 바꾸어 貧民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現在 사람들이 ‘杏林春暖’ 이라고 하는 것은 品德이 高尚한 醫師를 말하는 것이다. 宋代 唐愼微는 治病에 있어서 “不以貴賤 有所召必往 寒暑雨雪不避” 하였으며 治療費 대신 “但以名方 秘錄爲請” 하여 後에 <經史證類備急本草> 三十卷을 編纂하였는데 一七四六種의 藥物과 三千個 정도의 處方을 收錄하여 中藥學의 發展에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 北宋의 龐安常은 “爲人治病 率十有八九 踵門求診者 爲辟邸舍居之 親視針藥 必愈而後遣 其不可爲者 必實告之 不復爲治 活人無數 病人持金帛來謝 不盡取也” 하였으니 이 또한 報酬를 바라지 않고 誠心誠意로 治療를 하여준 例이다. 明代 龔庭賢은 <萬病回春> 中에 “凡病家延醫 乃寄之以生死 理當敬重 慎勿輕藐 貧富不在論財 自盡其誠 稍褻之則非重命者耳”⁹⁾ 라고 하였고, 明代 李梴은 <醫學入門> 中에 “病愈而希望貪求 不脫市井風味者 欺也” 라고 하여 財物만을 탐하는 庸醫들을 蔑視하였다. 張杲의 <醫設> 에는 北宋의 宣和年間에 어떤 선비가 病에 걸려 家産을 蕩盡하면서 治療를 하려고 하였으나 治療가 되지 않았는데 그 當時 何證이라는 醫術이 高明한 醫師가 있었다. 선비의 婦人은 선비를 何證에게 治療를 부탁하기로 決心하고 그에게 診察費가 없으니 몸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하자 何證은 “娘子何出此言 但放心 當爲調治 取效 切毋以此相污” 라고 하고 그 선비를 治療시켜 주었다. 이는 何證의 品性이 敦厚하고 正當하여 私利私慾을 채우지 않고, 病者가 急하고 어려울 때에 잘 도와준 美德을 稱讚한 글이다.¹⁶⁾ 元代 曾世榮은 “藥餌所施 百不失一 未嘗以病家之貴賤貧富而異其用心 或遇窘乏太甚之家 亦隨力捐資 濟其饑粥 以故全活者衆” 하여 患者들에게 診察費를 바라지 않고 反對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尊敬을 받게 되었다. <衡州府志> 에 元代 大德十年(1306년) 衡陽地方에 큰 火災가 發生하여 二千餘 家口를 태운 불길에 曾世榮의 집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肅心하여 그의 집이 타지 않게 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이는 曾世榮이 사람들에게 베푼 德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報恩하였다는 것이다.

醫師는 반드시 바른 것을 지키고 理財에 誘惑되어서는 안된다. <嘉興府志> 에 嚴樂善이라는 高明한 醫師에게 어떤 사람이 嚴樂善에게 金銀寶貨를 주면서 毒藥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嚴樂善이 金銀寶貨를 땅에다 집어 던지며 크게 引責하자 그 사람이 謝罪하고 크게 愧우쳤다는 記錄이 있다. 이와같은 精神은 稱讚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醫師가 이와같이 될수 있게 힘써야 한다.

名利를 追求하지 않는다는 것은 醫師가 患者를 對할 때 모든사람을 仁으로써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特히 가난하고 苦痛받는 患者에 對하여 特別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階級意識이 嚴格하여 貧賤한 사람들을 卑賤하게 여기는 封建社會에서의 이와 같은 일은 실로 珍貴한 것이다. 孫思邈은 “若有疾厄來求救者 不得問其貴賤貧富 長幼妍媸 怨親善友 華夷愚智 普同一等”⁷⁾ 의 姿勢를 醫師들에게 要求하여 後世醫家들이 이러한 影響을 받아 實踐하였다. 宋代의 唐愼微는 治病에 있어서 “不以貴賤 有所召必往 寒暑雨雪不

避"하였으며 宋代 張炳는 "無問貧賤 有謁必往視之 所活甚多"¹¹⁾ 하였으니 이와 같은 事例는 韓醫書에서 많이 記錄되어 있다.

學識이 優秀하여야 벼슬을 할 수 있는 封建社會에서 많은 醫師들은 그러한 社會風潮와는 달리 醫學을 사랑하고 醫療事業에 獻身하였으며 名利보다는 醫學發展을 追求하였다. 神醫로 불리우는 華陀는 여러차례 名利를 버리고 百姓들에게 醫術을 施行하려고 全國 各地를 巡訪하였다. 그는 일찌기 山東 江蘇 安徽等地를 巡訪하였으며 富貴를 圖謀하거나 위협을 무서워 하지않고 曹操의 主治醫가 되기를 拒絕하여 마침내는 殺害당하는 禍를 입었다. 그가 죽을 때에 獄吏에게 韓의 醫書를 주며 "此可以活人"이라고 하였으니³⁾ 이것이 바로 그가 眞心으로 活人에 뜻이 있었음을 알수가 있다. 孫思邈은 어려서 부터 勤勉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學識이깊어 隋唐 兩代의 帝王들이 여러 차례 벼슬을 주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는 當時의 사람들이 醫藥을 重要示하지 않고 偏狹한 知識으로 出世만 하려고 하는데 憤慨하고 醫學을 工夫하여 '藥王'에 推戴되었다. 明代 李時珍은 醫術이 高明하여 太醫院判에 推戴되었으나 그는 다만 1년만 奉職하고 故鄉에 돌아와 30여 년 동안 心血을 기울인 努力끝에 <本草綱目>을 著述하여 많은 百姓들에게 惠澤을 주었다.

醫師가 患者를 診察할 때 반드시 一定한 規則을 따라야 하는데 특히 婦人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明代 李梴은 "寡女室女 愈加敬重 此非小節 及其論病 須明白開論 辨析"이라고 하였고, 明代 陳實功은 "凡視婦女及孀尼僧人等 必候侍者在傍 然後入房 診視 倘傍無伴 不可自看 假有不便之患 更宜眞誠窺睹 雖對內人不可談 此因閨闈故也"라고 하여 더욱 明確하고 具體的으로 說明하였다. 이러한 論述은 現在에 있어서도 그 生命력을 잃지 않고 有效하고 있다.

(5). 謙虛하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尊重함.

歷代에 成就한바가 있는 醫師들은 모두 謙虛 謹慎하고 實事求是하였다. 戰國時期的 偏鵠은 虢 太子의 假死證을 治愈시킨 후에 사람들은 그에게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稱頌이 자자하였으나 偏鵠은 기뻐하지 않고 "越人非能生死人也 此自當生者 越人能使之起耳"라고 하여²⁰⁾ 謙遜한 態度를 보였다. 漢代의 淳于意도 自身の 名聲을 자랑하거나 治病例를 과장하지 않았는데 漢武帝가 그에게 治療를 잘한다고 稱讚하자 失手할 때도 있다고하며 二十五個의 醫案을 보여주니 그 중에서 十餘個가 治療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가 스스로 自身の 過失을 認定하였으니 이는 가히 尊敬스러운 것이다. 孫思邈도 매우 謙虛하여 "炫耀聲名 訾毀諸醫 自矜己德"하는 醫師들을 醫師自身的 膏肓之疾 이라고⁷⁾ 認識하여 批判하였고, 龔庭賢은 <萬病回春>에 "吾道中有等無行之徒 專一誇己之長 形人之短 每至病家 不問疾牙 惟毀前醫之過以該患者 設使前醫藥盡是 何復他求 蓋爲一時 或有所偏 未能奏效 豈可概前藥爲庸耶"⁹⁾라고 하여 謙遜하지 못하고 남을 誹謗하는 사람들을 批判하였다. 明代 陳實功은 <外科正宗>에서 "凡鄉井同道之士 不可生輕侮傲慢之心 切要謙和謹慎 年尊者恭敬之 有學者師事之 驕傲者遜讓之 不及者闡拔之 如此自無謗怨 信和爲貴也"¹⁹⁾라고 하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尊重하라고 하였다. 明代 萬全은 <幼科發揮>에서 "一庸醫狂悖 借父祖專門之名 自稱得異人之傳 妄立方法 變亂繩墨 管語人曰 吾能知人之臟腑 有病而去之 知其所傷之物 而取下之 知其疾之順逆 而豫解之 言大而誕 人皆信之 時有富家楊姓者 二子 聞其名而交結之 禮意息至 蓋爲其子之未出痘也 後一子出痘 因熱以湯蒸汗而死 小子因服附子毒發癰 亦死於醫之手 惜哉"라고 하여 自身을 스스로 天下의 良醫라고 사랑하는 것을 警戒하라고 하였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끼리는 서로 尊重하고 남의 長點을 취하고 自身の 短點을 補

完하여 함께 發展할 수 있어야 한다. 唐代 孫思邈은 自身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千里를 멀다않고 찾아가 배워왔다. 明代 李時珍은 全國을 돌아다니 老農, 老藥工, 山人, 漁民, 獵人들에게서도 가르침을 청하였다. 清代 葉天士는 다른 사람이 어떤 特技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찾아가 배웠으니 約 十年동안 十七名의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謙虛하게 받아들여 自身の 醫術도 크게 發展하게 되었다.

自己보다 못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배우는 사람에 있어서는 當然한 일이다. 清代 趙學敏은 <本草綱目拾遺>를 編纂하기 전에 일찌기 다른일을 하는 사람들 즉 '某仆' '某媪' '漁海人' '土人' '辛苦勞碌人' 등 과 無名氏등 二百餘名에게도 가르침을 구하였다. 그는 民間醫學을 重要시하여 <串雅> '序'에서 수많은 國醫들이 草醫들을 업신여기는데 실은 草醫들이 國醫에 비하여 더욱 高明하다고 하였다.¹⁶⁾ 宋代 張杲의 <醫說>에 다음과 같은 逸話가 있다. 北宋 徽宗때 寵妃가 咳嗽病에 걸려 잠도 못자고 얼굴이 붓자 醫官인 李防禦는 治療를 命받아 治療를 하였으나 별 效果가 없자 徽宗은 寵妃의 咳嗽病을 治療하지 못하면 罔罰을 내리겠다고 하자 그는 百方으로 努力하였으나 效果가 없어 絶望에 빠져있을 때에 문득 咳嗽病藥을 파는 소리를 듣고 그藥을 사서 自身이 直接 服用하여 副作用이 업자 그 藥을 妃에게 服用시키니 咳嗽와 얼굴부은 것이 사라졌다. 李防禦는 咳嗽藥을 판 草醫를 집으로 불러와 禮를 갖추어 待接하고 藥의 成分을 묻자 蚌粉을 볶게 炒하여 靑黛를 조금 섞은것 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草醫가 官醫보다 더 學文이 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¹⁵⁾ 清代 周學霆은 <三指禪>에서 "大醫見草醫而驚訝 名醫見草醫而肅然起敬也"라고 하여 草醫를 尊重하였다. 이와 같이 醫師는 서로의 長短點을 서로 補完 學習하여 서로의 學文을 交流하여야 한다.¹¹⁾

古人들이 自身の 弟子를 選擇할 때에는 매우 嚴格하여 品性이 高尚하며 聰明하고 醫學에 專念할 수 있으면 弟子로 받아들였다. <素問> '金匱眞言論'에 "非其人勿教 非其眞勿授"¹⁰⁾라고 하였는데 이는 醫學을 배우는 對象이 適合하지 않으면 絶對로 가르쳐주지 않고 正確하지않은 醫學知識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張桑君이 偏鵠을 弟子로 받아 들일때 十餘年동안 觀察하여 偏鵠이 普通사람이 아님을 알고 偏鵠에게 秘方書를 傳授시켜 주었다. 公乘陽慶은 西漢時代 醫學의 高手이며 그의 집안이 富裕하였으므로 患者를 잘 보아주지 않고 弟子를 養成하지 않고 있다가, 淳于意가 醫學을 사랑하고 스승을 恭敬하는 것을 보고 淳于意를 그의 弟子로 받아들이며 "我家給富心愛公 欲盡以我禁方書悉教公"이라고 하였다. 李杲는 일찌기 '覓錢' 대신 '傳道'로써 弟子를 選擇하는 基準으로 삼았으니 이는 古代 醫療道德教育의 典刑의인 方法이다. 李杲는 老年에 弟子를 選擇하여 授業하는데 羅天益이 行動과 品性이 敦朴하여 學文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羅天益에게 '너는 돈을 벌기위해 醫師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世上에 醫術을 傳道하기 의해서 醫師가 되려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자 羅天益은 '醫術을 傳道하기 위해서 입니다.'라고 對答하자 그는 흔쾌히 弟子로 받아들였으며 羅天益의 집안형편이 어려우므로 白金 二十兩과 宿食을 提供하여 羅天益으로 하여금 學文에 專念할 수 있게 하였다. 李杲는 臨終時에 自身の 著作을 모두 羅天益에게 주면서 "此書付汝 非爲李明之 羅謙父 蓋爲天下後世"라고 하였다. 元代의 名醫 朱震亨은 30세 때부터 <素問>을 工夫하기 始作하였고 40세 때에는 全國各地를 流浪하며 名醫들을 찾아다니다가 結局은 武林(杭州)에서 修道하는 羅知悌의 醫術이 뛰어나다는 所聞을 듣고 그에게 찾아갔으나 그는 劉完素의 再傳弟子로 張從正, 李杲의 學說에 通達하여 그 名醫이 대단하였고 사람이 매우 교만하여 朱震亨이 그의 弟子가 되겠다는 要求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朱震亨은 매일매일 그의 집 앞에서 弟子로 받아들이기를 要求하였으니 羅知悌가 이에

크게 感動하여 衣官을 整理하고 朱丹溪를 맞이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傳授하여 주었다. 明代의 小兒科 醫師인 萬全은 모두 十八명의 子息이 있었는데 後에 父業을 繼承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歷代 醫家들은 勤勉誠實한 弟子를 뽑아 自身の 技術을 傳授시켜 줄때 매우 嚴格하게 하였음을 알 수있다.

Ⅲ. 結 論

醫學倫理는 人間生命의 尊貴함과 不可侵性에 對한 認識과 人間의 나약함에 對한 理解에 그 根本精神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醫療行爲를 하는데 있어서 一定한 規範이 되는 것이다. 以上の 醫學倫理에 對한 論述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1. 醫師는 醫師로서의 必要한 知識의 習得에 充實하여야 한다.
2. 醫師는 게으르지 않고 自身이 맡은 일을 誠實하게 遂行하여야 한다.
3. 醫師는 醫師로서의 品位를 지켜서 돈을 탐내거나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4. 醫師는 모든 患者를 自身の 父母兄弟와 같이 생각하여 誠心誠意껏 治療하여야 한다.
5. 醫師는 모든 사람에게 謙遜하며 특히 自身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尊重하여야 한다.

以上이 醫學倫理에 對한 論述의 要約인데, 특히 東洋醫學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具體적인 方法까지도 提示하였는데 이러한 事項들은 現代에서도 適用이 되고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戴良 丹溪翁傳 醫部全書十六冊 醫部藝文 藝文印書館 12527
2. 羅天益 衛生寶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1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7 PP17-24
13. 李中梓 醫宗必讀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66年
3. 司馬遷 史記 臺北 弘業書局有限公司 1983 偏鵠列傳 2785-2820
4. 徐春甫 古今醫通 醫部全書十六冊 藝文印書館 12165-12172
5. 成百曉譯注 論語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0 P118
6. 小兒衛生總微方論 醫部全書十六冊 藝文印書館 12177
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2
8. 宋濂 丹溪先生墓志銘 醫部全書十六冊 藝文印書館 12315-12326
9. 龔庭賢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2 PP236-238
10. 王琦外四人 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79

11. 醫學倫理學編寫組 醫學倫理學 北京 北京出版社 1986 PP20-28
14.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P20-21
15. 張杲 醫說 醫部全書十六冊 藝文印書館 12157-12160
16. 趙學敏 串雅內篇選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17. 周禮. 天官 醫部全書第十六冊 藝文印書館 12123-12124
18. 周一謀 歷代名醫論醫德 長沙市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 PP1-25
19. 陳實功 外科正宗 醫部全書十六冊 藝文印書館 12176-12177
20. 偏鵠 難經校釋(南京中醫學院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24-26
2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2. 韓國가톨릭醫師協會 醫學倫理 서울 壽文社 1984 PP148-151. 167.